

권오신의 현조(賢祖)실록 산책 기획특집 5

임란의병장 梅窩公과 천재문인 香塢公

매와공

향오공

대과급제 후 세상을 뜬 천재문인 향오공



글 권오신 (대중회 부회장, 칼럼니스트)



조선후기朝鮮後期 사회의 과거는 문벌門閥 세도기勢道家 자녀들의 나눠먹기가 될 만큼 부패가 극에 달했다. 대과급제자 정수 33자리가 지켜지지 않을 만큼 문란, 그 폐해가 극심했던 시기가 대한 제국까지 이어져진 암울한 시대였다.

대과급제자 정수 33자리가 지켜지지 않을 만큼 문란해져 있었다.

세도가와 졸을 달지 않는 지방 선비가 들어가기란 나타나기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말로 비유될 만큼 어려웠으니 현종憲宗 3년(2836년) 한양漢陽에서 치른 대과大科에서 향오공香塢公 휘諱 찬환贊煥(1782-1836)의 급제는 경주향 전체의 축제가 됐다.

이른 아침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동헌東軒 앞 황토길에 물을 뿌리고 마중을 나왔을 정도로 환영행사가 성대했다고 한다.

향오공香塢公은 안강현 흥천에서 탐탁재公耽樂齋公(휘諱 동진東鎭)의 둘째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특히 문재文才가 빼어났다. 유학자儒學者 이근오李覲塢의 문하에서 수학修學할 때나 향시(鄉試, 조선의 과거제도, 대과에 앞서 각도에서 치른 初試)에서 지었던 수려한 문장을 두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더욱이 향오공이 지은 문장이 당시 과거 공부를 했던 유생儒生들의 교본敎本이 되었을 만큼 유명했다고 하며 백외에서 글을 구하려 온 유생儒生이 있었을 정도로 문재가 빼어났다.

1811년 백형과 스승이, 이어 부친과 어머니가 세상을 뜨는 슬픔으로, 또 어린 조카들을 거두면서 학문과 과거를 잠시나마 멀리 했었다.

현종憲宗 3년(1836) 학문을 그대로 썩힐 수 없다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해 대과大科에 응시했다. 초시初試 때처럼 바로 대과大科에 급제, 어사화(御賜花, 급제자에게 임금이 내린 종이 꽃)를 쓰고 경주향에 내려 오셨다. 대과급제大科及第單으로 경주향은 물론 영남 유림사회에서 유현(儒賢, 유학에 정통하고 행동이 바른 선비)으로 우뚝 서게 됐다.

사람의 수명이 부귀富貴를 가렸던 시절이었다. 향오공香塢公의 생애生涯는 안타깝게도 대과급제가 끝이었다.

한양漢陽 출사에 앞서 처가 집 인사에 나섰다 급성 배양이 병을 얻었다. 요즘으로 치면 급성 수인성질병이었으나 당시 조선朝鮮의 의료 체계로서는 살릴 수 없었다.

향오공香塢公은 특별 며칠 만에 생사를 놓아버렸다.

대과급제자가 누려야 할 조선朝鮮의 기록권을 잃었을 뿐 아니라 가문의 몰락으로 불만족 엄청난 충격이었다. 천재문인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수를 타고나지 못한 불운의 유현儒賢이 됐다.

유택幽宅은 포항시 기계면 안심리 산리에 써졌으며 공의 생애와 학문적 업적이 비감碑碣에 음각됐다. 배위이신 영인(永人, 임금이 정사품 종사품 문무관의 부인에게 내린 품계) 무안박씨(務安朴氏, 부사 통정대부通政大夫 현주憲周)사이에서 두 딸과 통덕랑通德郎을 지낸 휘諱 치일致堦공을 낳았다. 두 딸은 유생儒生 손상옥孫相煜, 박시유朴時裕 공에게 출가했다.

향오공香塢公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현종憲宗 임금은 승정원주서검춘추관기사관(正六品, 承政院注書兼春秋館記事官)으로 증직하는 긴 교지(敎旨, 임금이 급제자에게 내린 일종의 사령장)를 내렸다.

향오공香塢公의 사후 후손들은 유집을 발간하고 호계서사虎溪書社 상덕묘象德廟 동벽東壁에 배향配享, 춘향을 받들고 있다. 호계서사虎溪書社 상덕묘象德廟 중존위中尊位는 공의 선대先代이신 임진왜란壬辰倭亂, 의병장義兵將이시자 대학자이신 매와公梅窩公이시다.

(글)

권오신의 현조(賢祖)실록 산책 기획특집 6

나라 곳간을 열어 백성을 살리고 유배를 택한 유연공悠然公

권오신(대중회 부회장, 칼럼니스트)

자字는 인백仁伯, 호號는 유연悠然, 휘諱는 동운東運.

유연公悠然公은 경상도 연일延日 대장산大峯山 유배지에서 살아생전에 동구 밖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으며 단종 임금이 계신 서쪽 자리를 늘 비워두셨던 입향조 사정공司正公(諱 壽海)의 불의절의 정신을 놓은 적이 없었던 외로운 삶을 사셨다.

유연公은 조선 현종 1844년 휘諱 치만公致萬公의 맏이로, 순환공舜煥公의 손자로, 귀휴公龜休公의 증손으로 경상도 연일延日縣(지금의 대송면 호동)에서 태어났다.

학문도 대단했지만 민초를 사랑하는 기개가 하늘을 찔렀던 사대부이시었다.

자字는 인백仁伯, 호號는 유연悠然, 휘諱는 동운東運. 분성김씨盆城金氏, 응연應淵公의 따님과 혼인해서 영기寧琪, 영규寧圭, 영우寧宇 공등 세 아드님을 두셨다.

일찍부터 경사(經史, 사서오경과 사기)는 물론 주역周易까지 통달한 학문적 성취로 공의 연일延日縣 사당체엔 문도가 졸을 이었으며 들관과 거리에 나서면 머리를 숙이지 않는 백성이 없었다.

연일延日縣 등 여러 곳에서 유생(儒生,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을 가르쳤다.

의협심이 특히 강했던 유연公은 굶주림이 일상이 된 민초들의 삶을 보는 것이 가슴 앓이가 됐다. 백성들의 가난한 삶과는 반대로 극에 이른 조선후기 관리들의 부패 행위를 보고 지나 칠 수가 없어 연일延日縣監이나 경상감사慶尙監司에게 유소(儒疏, 유생들이 올리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그 때마다 “잘 살피겠다.”는 비답을 보고 크게 상심했다고 한다.

철종(哲宗, 재위기간 1849-1863)이 죽고 대원군大院君이 섭정을 했던 고종시대가 열렸지만 백성들의 삶은 더 나빠지고 공명첩에서 시작된 매관매직賣官賣職은 백골진포(白骨徵布, 조선 말엽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과 세금대장에 올려놓고 세금을 거두는 일)로 이어지는 지는 등 부패 현상이 극에 달했던 시기를 살았다.

더는 보고 남길 수 없었던 유연公은 흉년이 거꾸 들어 굶주림이 극에 달했던 해에 행동으로 옮겼다. 이때가 58살로 추정된다.

부황(浮黃, 오래 굶어 살기죽어 들떠 누렇게 변해가는 가는 현상)이 들은 백성과 삶의 터전을 떠나는 현縣의 백성들을 경상도 연일현 곳간(지금의 정부 쌀 보관창고, 지금의 포항시 연일읍 생지동 추정)에 모이게 하고 창고에 쌓인 쌀을 모두 나눠줘 버렸다.

연일(延日) 곳간에서 쌀을 가져간 백성들이 천 명이 넘었다.

당시로서는 거사(擧事, 반란이나 혁명을 일으킬 큰일)수준의 결단과 용기가 따르지 않으면 결코 실행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유연公은 즉시 연일延日縣監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리고 高宗으로부터 3년 유배형을 받았다. 연일延日縣을 비롯한 인근 지방관아의 백성과 관리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떠나는 귀양길(강원도 양구)이 됐다.

유연公은 유배流配 길에서도 비문碑文을 해석해주고 묘갈墓碣을 짓는 학행學行으로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배소所에서도 후학後學을 기르는 등 학문을 놓지 않았었다.

1507년에 창건된 연일향교延日鄉校에 남긴 “연일향교회종延日鄉校會中 完表”는 명문(名文)중에 명문이었다. 당시 유연公이 글을 지었던 1864년은 연일향교延日鄉校가 중창을 했을 시기, 약관의 나이를 막 넘겼음에도 향중이 알아주는 학문적 명성으로 인해 글을 지었다. 대원군에 의해 훼손되었다가 35년 만인 1905년 설단이 된 오천서원烏川書院 상양문도 유연公(悠然公)이 지었다.

유고 문집 유연집悠然集 4권이 전해진다.

경상좌도慶尙左道를 덮었던 학문적 명성과 민초들의 고달픈 삶을 걱정했던 기개와는 달리 사후세계는 안락적이지 못해 여러 차례 유택幽宅이 옮겨졌다. 처음엔 연일延日 인덕산仁德山 기슭에 을좌(乙坐, 남동쪽을 등지고 앉은자리)로 썼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 파손, 오정오政 선영先塋부근에 이장했었다. 2003년 이 지역이 포함철강공단 부지에 편입되어서 다시 지금의 장소(포항시 대송면 호동)로 이장됐다.

(글)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창 (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민섭